

‘아재 호러’의 매력 속으로



성동일

올해 공포영화 최고 흥행작 등극 가족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 성동일·배성우의 반전 매력 눈길

배우 성동일과 배성우가 공포영화에 새 바람을 몰고 왔다. 가족 안에 스며든 악마에 맞선 두 남자의 처절한 분투가 한국 공포영화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성동일과 배성우가 주연한 '변신'(제작 다나크리에이티브)이 1일 누적관객 150만 명을 돌파하면서 '어스'(147만 명)를 넘어 올해 공포영화 최고 흥행작에 올랐다. 제작비 회수 시점인 손익분기점(166만 명)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다. 1일에 이어 2일에도 박스오피스, 좌석판매율 모두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변신'은 오랜만에 나온 한국 공포영화라는 희소성과 더불어 남성 캐릭터들이 전면에 나선 공포영화라는 사실로 시선을 붙잡는다. 공포영화가 대부분 '호러 퀸'으로 상징될 만큼 공포심에 시달리는 여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짜온 사실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영화는 가족 안에 숨어든 악마를 찾는 이야기다. 성동일은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이지만 때때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 섬뜩한 상황을 벌인다. 배성우는 그의 동생이자 악령에 맞서는 구마사제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

는 사제가 지극히 비주열에 신경 쓴 모습이라면 배성우는 동네 성당에 가면 있을 법한 신부로 관객에 다가선다. 오랜 기간 '친근한 아재'의 이미지로 관객과 신뢰를 나눴은 두 배우가 공포 장르에 나서 신선한 매력을 선사한다는 평도 따른다.

'변신'은 단순한 공포물에 그치지 않고 초현실적인 오컬트의 매력을 담아 몽클한 가족애의 정서도 녹여냈다. 처음 공포영화에 도전한 성동일은 "나는 악마다!"라고 소리치는 뜬금없는 영화가 아니라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오는 공포라는 사실에 끌렸다"고 말했다.

이런 변주를 통해 '변신'은 공포영화의 주요 관객층인 1020세대는 물론 10대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는 영화로도 자리매김했다. 배급사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의 박해정 마케팅팀장은 "악마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다는 설정이 기존 공포영화와 다르다"며 "1020세대를 중심으로 반응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밝혔다.

인위적 기술도 최대한 자제하며 사실적인 공포를 추구한 점도 힘이 됐다. 컴퓨터그래픽이나 사운드 효과를 배제한 상태에서 배우들의 음성 위주로 구성했고 쥐나 구더기, 지네처럼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생명체도 모형이 아닌 실제로 구해 촬영했다.

이해리 기자 golf024@donga.com



배성우

아이돌 드라마 러시...팬들은 설렌다

BTS 드라마 내년 하반기 공개 예고 연습생 애환 그린 채널A '터치' 기대

아이돌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드라마가 잇따라 등장한다. 수많은 대중의 환호를 받는 아이돌 가수들의 일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다. '방탄소년단 드라마'부터 채널A '터치', '아이돌 주치의' 등이 내년 공개를 앞두고 한창 준비 중이다.

단연 방탄소년단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는 이들이 처음 만난 시절부터 실제 경험한 에피소드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2013년 데뷔하기 이전을 배

경 삼아 현재 전 세계를 무대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이들의 '과거'가 담긴다. 멤버들이 직접 출연하지 않아 '싱크로율' 높은 캐스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제작사 초록됰 미디어가 손잡고 내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제작할 예정이다.

'터치'와 '아이돌 주치의'는 현실을 직시하거나 판타지 감성을 담아 각기 다른 시선으로 아이돌에 접근한다.

'터치'는 10년간의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도 데뷔하지 못한 여주인공이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에서 빗방이 실업자로 전락한 인물을 만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제작진은 여주인공을 통해 현



방탄소년단

재의 '연습생 시대'를 비추며 오로지 데뷔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의 일상을 살아가는 청춘의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이돌 주치의'는 팬들이 한번쯤 꿈꿔봤을 법한 환상을 그린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남성 아이돌 스타가 단 한번의 실패를 겪고 스트레스로 몽유병에 시달리게 되

자 이를 비밀리에 치료하기 위해 주치의의 집에 들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건강복지사로 사정한 여주인공이 그의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다. 대본을 집필하는 신서하·이율림 작가는 관전 포인트로 "팬들은 한번쯤 아이돌 숙소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상상하곤 하는데 드라마는 이 같은 '덕후'들의 판타지를 저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원작 싱크로율 100%...‘타지옥’ 명품 조연 삼총사

〈‘타인은 지옥이다’〉

이현욱·박종환·이종욱 강렬한 인상 캐릭터 궁금증 유발...시청자들 주목

8월31일 첫 방송한 케이블채널 OCN 토일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속 개성만점 연기자들이 시청자 시선을 쏙 빼앗았다. 주인공은 이현욱·박종환·이종욱. 이들의 얼굴은 익숙하지 않고, 이름은 더더욱 낯설다. 불리한 조건에도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연기력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완벽하

게 소화하며 주연 임시완·이정은·이동욱 사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존재감을 한껏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극중 이현욱은 서늘한 미소 뒤에 감춰진 비밀스러운 모습으로 호기심을 자극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이야기 배경인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뤄가는 실체를 드러냈다. 동명의 원작 속 일명 '왕눈이' 캐릭터와 '싱크로율'이 높아 더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



이현욱

박종환

이종욱

과 출신으로 연극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며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 '표적' 등에 출연했다.

박종환은 웃음소리만으로도 긴장감과 공포를 조성했다. 극중 기괴한 웃음소리로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어딘가 모자라게 보이는 행동을 일삼는다. 하지만 잔혹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서서히 밝혀질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특히 '멀쩡한' 모습의 쌍둥이 형 역까지 1인2역으로 두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이종욱은 앞서 '1000만 관객'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다. 올해 1월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에서 마약 범죄자로 류승룡과 대치하는 장면에 등장해 큰 웃음을 안겼다. 하지만 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변태적 성향을 드러내는 캐릭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출자 이창희 PD는 2일 "연기자들이 표정과 작은 움직임 하나 놓치지 않고 캐릭터를 잘 소화해 원작 싱크로율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싸이, 새 앨범 나온다

연기된 9집 수록곡 일부 공개

가수 싸이가 2년 만에 새 앨범 발표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앞서 한 차례 미뤄진 만큼 완성을 높여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싸이는 당초 7월 정규 9집을 내놓을 계



싸이

획이었다. 하지만 준비 중이던 5월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또 더욱 완성도 높은 앨범을 원하는 바람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싸이는 9집의 수록

곡 일부를 교체하거나 편곡하는 등 재작업을 거쳐 새 앨범에 담기로 했다.

대신 싸이는 그 사이 7월13일 경기 수원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 자신의 여름 브랜드 콘서트를 받으면서 예상치 못하게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셀럽'은 전자사운드를 가미한 경쾌한 느낌의 싸이표 댄스곡으로

'넌 나의 셀럽 셀럽 셀럽 셀럽~'이라는 가사가 담겼다. 특히 톱스타 수지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 새롭게 작업하는 과정에서 '셀럽'이 다시 타이틀곡으로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늘 파격적인 변신과 기상천외한 콘셉트를 내놓는 싸이인 만큼 이번엔 선보일 새로운 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1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4

장혜진, 강승호 대표와 합의 이혼



장혜진

가수 장혜진이 남편인 연예기획사 켄터테인먼트 강승호 대표와 결혼 27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로 8월 관련 절차를 끝냈다. 장혜진의 소속사 켈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2일 "많은 상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지만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며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장혜진이 MBC 합창단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처음 만나 1992년 결혼했다. 장혜진은 1991년 가수로 데뷔해 '키 작은 하늘' '꿈의 대화' 등을 히트시켰다.

‘그일’ 김성재편 청원 20만 명 돌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 사건 관련 방송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지난달 5일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처음 오른 뒤 2일 오후 20만 명을 돌파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앞서 8월3일 관련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자 방송을 취소했다.

강지환 첫 재판 “잘못 반성한다”



강지환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기자 강지환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행동은 기억 못 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강지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강지환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극도의 우울병과 정신장애, 항후 외상 후 정신장애가 우려된다는 소견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0월7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프듀’ 의혹, 전 시즌으로 수사 확대

케이블채널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의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전 시즌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듀X’는 물론이고 이전에 방송한 시즌 1, 2, 3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7월 막을 내린 '프듀X'는 데뷔 조 순위 선정 과정에서 조작 논란이 재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J ENM 사무실과 문자 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